

우월한 국어  
이 . 유 . 진



# 최근 3개년 지/서 9급 국어 기출 분석

## 2019~2021년(인사역신서 출제)

現) 메가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박문각 공무원 국어 대표 교수  
KG패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정승, 강남중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진세무대학 출강

기타)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짜기  
법률저널 PSAT 언어논리 칼럼 연재  
KBS한국어능력시험 유형서 짜기



이유진 우월한 국어



우월한 국어 이유진 카페

### ※ 최근 3년 지방직(서울시) 출제비율 ※

- 1순위 독해(41~42/60)
- 2순위 문법규정(11/60)
- 3순위 한자/어휘(7~8/60)

- ★ 이론 문법(5/60) - 원리의 이해
- ★ 어문규정(6/60) - 표양 이해와 예시 암기
- ★ 독해(비문학)(19/60) - 정확도와 속도, 유형 다양화
- ★ 독해(문학)(14/60) - 미리 알아야 하는 것 + 문항 대응
- ★ 독해(화작)(8/60) - 필요한 이론과 문항 대응
- ★ 한자와 어휘(7/60) - 발문 방식과 선지 조점의 변화
- ★ 융합형(1/60) - 독해+생어

### ※ 2022년 지방직 9급 예상

## ★ 이론 문법(5/60) - 원리의 이해

### 1. 음운론(1/5)

2019년 지방직 9급

문 8.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가을일[가을릴]                      ㉡ 텃마당[텃마당]
- ㉢ 입학생[이팍생]                      ㉣ 흙먼지[흙먼지]

- ① ㉠: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② ㉡: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 ③ ㉢: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 ④ ㉣: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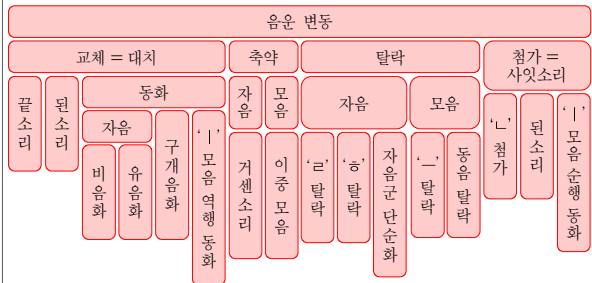
### ★ 정답: ③ -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 변동

③ 입학생[이팍생](음운의 축약)

변동 전 음운 개수: ‘ㅣ, ㅂ, ㅎ, ㅏ, ㄱ, ㅏ, ㅂ, ㅇ’ (8개)

변동 후 음운 개수: ‘ㅣ, ㅍ, ㅏ, ㄱ, ㅏ, ㅂ, ㅇ’ (7개)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유기음화, 격음화): ‘ㄱ, ㄷ, ㅂ, ㅈ’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뜻한다.



### ★ 오답 해설:

① 가을+일 ⇨ [가을닐]('ㄴ'첨가) ⇨ [가을릴](유음화)

'ㄴ'첨가와 유음화 2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난다.

·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될 수 있다.

· 유음화: 'ㄴ'이 앞이나 뒤에 위치한 유음 'ㄹ'의 영향으로 발음이 'ㄹ'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

② 텃+마당 ⇨ [텃마당]('ㄴ'첨가)

'텃마당'은 '텃'과 '마당'이 합성되면서 '마당'의 'ㄹ'의 영향으로 앞말의 받침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이다.

\*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을 인정한 다음과 같은 관점도 있다.

텃마당[텃마당](음절의 끝소리 규칙) ⇨ [텃마당](비음화)

④ 흙먼지 ⇨ [흙먼지](자음군 단순화) ⇨ [흙먼지](비음화)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2. 형태론 (1/5)

2020 지방직 9급

문 7. 밑줄 친 부분의 활용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에 오면 그는 항상 사랑체에 머물었다.
- ② 나는 고향 집에 한 사나흘 머무르면서 쉴 생각이다.
- ③ 일에 서툰 것은 연습이 부족한 까닭이다.
- ④ 그는 외국어가 서투르므로 해외 출장을 꺼린다.

### ★ 정답: ① - 이른 문법 - 형태론 - 용언의 활용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16항에 따라 ‘머무르다’와 ‘머물다’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 하지만 준말 뒤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문장에서 ‘머물었다’로 적는 것은 옳지 않다.

‘머무르다’의 어간 ‘머무르-’에 모음 어미가 오면 ‘르’가 모음 어미 앞에서 ‘르르’로 바뀌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므로 ‘머물렀다’로 적는 것이 옳다.

### 참고) 표준어 규정 제16항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본말	준말	비고
머무르다	머물다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서투르다	서툴다	
서투르다	서툴다	

### ★ 오답 해설:

- ② ‘머무르면서’는 ‘머무르다’의 어간에 어미 ‘-면서’가 결합한 형태로 옳은 표기이다.
- ③ 표준어 규정 제16항에 따라 ‘서투르다’와 ‘서툴다’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다. ‘서툰’은 준말인 ‘서툴다’의 어간에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인데 어미 ‘-ㄴ’이 모음 어미가 아니므로 적절한 활용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서투르다’의 활용형인 ‘서투른’과 ‘서툴다’의 활용형인 ‘서툰’ 둘 다 옳은 표기이다.
- ④ ‘서투르다’는 ‘르’ 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이므로 어간 뒤에 어미 ‘-(으)므로’가 결합할 때는 ‘서투르므로’와 같이 적는다.

## 3. 통사론 (1/5)

2019년 지방직 9급

문 9. 어법에 어긋난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서술어 ‘열람하다’는 부사어 ‘관계자에게’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 ②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 목적어 ‘수역을’과 서술어 ‘제외되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제외된’은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③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며 호응하지 않으므로 앞의 ‘교부’를 삭제한다.
- ④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접수되었을 때에는’은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꾼다.

### ★ 정답: ④ - 이른 문법 - 통사론 - 올바른 표현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다’는 사건은 문맥상 완료된 상황이 맞으므로 ‘접수될 때에는’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 참고로, ‘우선하다’는 ‘앞서 다루어지거나 특별히 여겨지다.’라는 의미이다.

### ★ 오답 해설:

- ① 서술어 ‘열람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관계자가 관련 도서를 열람한다’와 같이 써야 한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서는 ‘관련 도서’가 ‘비치하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도서는 ~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한다’와 같이 바꾼다.
- ②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에서 서술어인 ‘제외된’과 목적어인 ‘수역을’의 호응관계가 어색하므로 능동의 형태인 ‘제외한’으로 바꾼다.
- ③ ‘과업 지시서 교부’와 서술어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므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의미론(2/5)**

2020 지방직 9급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전앞’과 마찬가지로 ‘피해(被害)를 당하다’에도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피해’의 ‘피(被)’에 이미 ‘당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형부터 먼저 해라.
- ②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 ③ 발언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펴다.
- ④ 그는 예의가 바를 뵈더러 무척 부지런하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의미론 - 의미의 중복**  
 ‘그는 예의가 바를뵈더러 무척 부지런하다’의 ‘-르뵈더러’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무척’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의 뜻을 지닌 부사이므로 ‘-르뵈더러’와 ‘무척’ 사이에는 의미의 중복이 없다.

**★ 오답 해설:**  
 ① 조사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고 부사 ‘먼저’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조사 ‘부터’에 이미 ‘범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부터’와 ‘먼저’ 사이에는 의미의 중복이 있다.  
 ② 부사 ‘오로지’는 ‘오직 한 곳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고 조사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므로 두 단어 사이에는 ‘어느 것을 한정한다’는 의미의 중복이 있다.  
 ③ 조사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뜻을 가지고 있고 부사 ‘각각’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마다’의 뜻이다. 이미 부사 ‘각각’에 ‘마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다’와 ‘각각’ 사이에는 의미의 중복이 있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에 일정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

- ① 성공(成功) : 실패(失敗)
- ② 시상(施賞) : 수상(受賞)
- ③ 판매(販賣) : 구매(購買)
- ④ 공격(攻擊) : 방어(防禦)

**★ 정답: ① [이론 문법 - 의미론 - 반의 관계]**  
 제시된 문장은 방향 반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를 통해 반의어임을, ‘일정한 방향성’을 통해 방향 반의어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방향이 아닌 등급에서 대립을 보이는 ‘성공(成功) : 실패(失敗)’는 정도 반의어 중 평가 반의어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문맥상 의미에 따라 상보 반의어로 보는 관점도 있다  
**참고 반의 관계**  
 (1) 상보 반의어: 반의 관계의 개념적 영역에서 상호 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되는 단어 쌍이다. 중간항이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다.  
 예) 남자-여자, 참-거짓, 삶-죽음, 합격-불합격, 출석-결석  
 (2) 정도(程度) 반의어: 정도나 등급에서 대립을 이루고 있는 단어 쌍을 의미한다. 정도 반의어는 다시 척도(尺度) 반의어, 평가(評價) 반의어, 정감(情感) 반의어로 나눌 수 있고 중간항이 존재하며 동시에 부정 가능성이 있다.

- ① 척도(尺度) 반의어: 길다-짧다, 높다-낮다, 깊다-얕다, 넓다-좁다, 두껍다-얇다, 크다-작다, 세다-여리다, 무겁다-가볍다
- ② 평가(評價) 반의어: 좋다-나쁘다, 쉽다-어렵다, 영리하다-우둔하다, 유능하다-무능하다
- ③ 정감(情感) 반의어: 덩다-춥다, 달다-쓰다, 기쁘다-슬프다, 뜨겁다-차갑다
- (3) 방향(方向) 반의어: 맞선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 쌍을 의미한다. 방향 반의어에는 공간적 대립, 인간관계 대립, 이동적 대립이 있다.

- ① 공간적 대립: 위-아래, 오른쪽-왼쪽, 앞-뒤, 처음-끝, 남극-북극
- ② 인간관계 대립: 부모-자식, 남편-아내, 스승-제자
- ③ 이동적 대립: 사다-팔다, 올라가다-내려가다, 입다-벗다, 열다-닫다

**★ 오답 해설:**  
 ② ‘시상(施賞) : 수상(受賞)’에서는 ‘상(賞)’을 주고받는 방향성이 나타나므로 두 단어는 방향 반의어이다.  
 ③ ‘판매(販賣) : 구매(購買)’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賣/買) 방향성이 나타나므로 두 단어는 방향 반의어이다.  
 ④ ‘공격(攻擊) : 방어(防禦)’에서는 상대를 치고(攻) 막는(防) 방향성이 나타나므로 두 단어는 방향 반의어이다.

**★ 어문규정(6/60)**

**- 조항 이해와 적용**

**1. 한글 맞춤법(6/6)**

2021년 지방직 9급

문 1.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바쁘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 ② 결혼식이 몇 월 몇 일이야?
- ③ 굳은살이 박인 오빠 손을 보니 안쓰럽다.
- ④ 그는 주말이면 으레 친구들과 야구를 한다.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몇 일 → 며칠  
 ‘며칠’의 경우 ‘몇+일’로 분석하여 ‘몇 일’이 되는 것으로 혼동되기 쉽지만, ‘몇 일’은 ‘며칠’의 잘못된 표현이다.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는 한글 맞춤법 제27항 붙임 규정에 따라 ‘며칠’로 적는 것이 옳다.

**★ 오답해설:**  
 ① ‘어찌 된 일. 의외의 뜻을 나타낼 때’는 ‘웬일’을 사용한다. ‘웬’은 ‘어찌 된’이라는 의미의 관형사로 ‘웬일’은 합성 등재된 단어이다. 이때의 ‘웬’을 ‘웬’으로 적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유를 뜻하는 ‘왜’와 관련이 없는 말이므로 ‘웬’으로 적는 것이 옳다.  
 ③ ‘손바닥, 발바닥 따위에 굳은살이 생기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박이다’로 쓴다. 이때 쓰인 ‘박이다’는 단일어로 ‘박다’의 피동사인 ‘박히다’와 구분해야 한다. ‘박히다’는 ‘벽에 박힌 못을 빼내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반지’ 등에 사용되는 단어이다.  
 ④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10항에 따라 ‘으레’로 적는다. ‘으레’는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이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어 모음이 단순화되어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2021년 지방직 9급

문 2.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써 부족함이 없다.
- ② 대화로서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
- ③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 ④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세 번째가 됩니다.

★ 정답: ③ -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시간을 쉼할 때 쉼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는 '로써'를 사용한다. 일을 끝내는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오늘'을 나타내기 위해 격 조사 '로써'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해설:

- ① (→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로써)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 ④ (→로써) 시간을 쉼할 때 쉼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참고 '로서'와 '로써'

▶ 로서 「조사」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 「1」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 「2」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

▶ 로써 「조사」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 「1」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로'보다 뜻이 분명하다.
- 쌀로써 떡을 만든다.
- 「2」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로'보다 뜻이 분명하다.
-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 풀로써 단맛을 낸다.
-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 「3」 시간을 쉼할 때 쉼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로'보다 뜻이 분명하다.
-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일곱 번째가 됩니다.
-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4.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것은?

- ① 이 가곡의 노래말은 아름답다.
- ② 그 집의 순대국은 아주 맛있다.
- ③ 하교길은 늘 아이들로 북적인다.
- ④ 선생님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 정답: ④ -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 사이시옷

사이시옷 현상은 예외가 많은 수의적 현상의 일종이므로 동일한 음운 조건임에도 사이시옷 현상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혼잣말[혼잔말]-인사말[인사말]'이 있다.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이므로 사이시옷의 음운론적 조건(사이시옷 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고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니, 나, 너, 노, 누'로 발음될 수 있다.
  - 예) 꽃+있 → [꼴닙], 한-+여름 → [한너름]
- ㉡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ㄱ, ㄴ'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받침에 'ㄴ' 소리가 첨가될 수 있다.
  - 예) 코+날 → 꼴날[꼴날], 수도+물 → 수돗물[수돗물]
- ㉢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ㅣ'나 '반모음 ㅟ(j)'으로 시작될 때에는 'ㄴㄴ' 소리가 첨가될 수 있다.
  - 예) 나무+있 → 나뭇잎[나문닙], 깨+있 → 깻잎[깻닙]
- ㉣ ㉠과 ㉡의 경우 덧난 소리에 대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참고 사이시옷 표기의 발음·형태 조건

- 발음 조건
  -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등이 된소리로 나는 것
  - 폐쇄시키는 음([ㄷ])이 뒤의 'ㄴ, ㄹ'에 동화되어 [ㄴ]으로 발음되는 것
  - 뒤 단어의 첫소리로 [ㄴ]이 첨가되면서 폐쇄시키는 음([ㄷ])이 동화되어 [ㄴㄴ]으로 발음되는 것
- 형태 조건
  - 단일어나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
  - 고유어 + 고유어 / 고유어 + 한자어 / 한자어 + 고유어
  - 외래어와 결합될 경우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피자집○, 피자집× / 핑크빛○, 핑크빛×)
  - 한자어 + 한자어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을 쓰는 예외 6개 (곶간, 텃간, 찻간, 횃수, 숫자, 셋방)
  - 앞 형태소가 모음으로 끝남 (= 사이시옷을 쓸 자리가 비어 있음).

★ 오답 해설:

- ① 노래말(X) → 노랫말: 가곡, 가요, 오페라 따위로 불릴 것을 전제로 하여 쓰인 글. =가사.
-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ㄱ, ㄴ'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받침에 'ㄴ' 소리가 첨가되어 덧난 소리에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 ② 순대국(X) → 순댓국: 돼지를 삶은 국물에 순대를 넣고 끓인 국. 합성어인 명사에서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수 있다. 이 경우 덧난 소리에 대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사이시옷은 본래 음운이 아니지만, 이 경우 사이시옷을 대표음화하여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③ 하교길(X) → 하곶길: 하교하는 길. 「반대말」 등곶길(登校길) 한자어 하교(下校)+길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하:곶길/하:곶길]로 발음하고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2020 지방직 9급

문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해도해도 너무한다.
- ② 빠른 시일 내 지원해 줄 것이다.
-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테나 쓴다.
-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 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시일 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의존 명사인 ‘내’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내(內): 「의존 명사」(일부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일정한 범위의 안.

예 범위 내 / 건물 내 / 일주일 내

**★ 오답 해설:**

① ‘해도V해도 너무한다.’는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테나 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대접하는 경우에나 쓰인다’는 뜻이므로 의존 명사 ‘테’가 오는 것이 적절하고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대접하는 테나’와 같이 쓰는 것이 옳다.

- 테: 「의존 명사」

「1」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일’이나 ‘짓’의 뜻을 나타내는 말.

「3」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

- ㄴ테:

1.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르’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사오-’ 따위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2.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참고) 제42항-어미와 형태가 같은 의존 명사**

테	의존 명사	책을 다 읽는 <u>테</u> 삼 일이 걸렸다. (장소, 경우)
	어미 일부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 <u>넌</u> . (종결) 날씨가 추우 <u>네</u>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연결)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제시된 문장에서 ‘정공법밖에’는 명사 ‘정공법’ 뒤에 ‘그것 말고는’의 의미를 나타낸 보조사 ‘밖에’가 붙은 형태이므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정공법밖에’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이 옳다.

- 밖에: 「조사」(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 밖: 「명사」

「1」 어떤 선이나 금을 넘어선 쪽.

「2」 길이 되는 쪽. 또는 그런 부분.

「3」 일정한 한도나 범위에 들지 않는 나머지 다른 부분이나 일.

「4」 무엇에 의하여 둘러싸이지 않은 공간. 또는 그쪽.

「5」 사망, 상하를 던거나 가리지 아니한 곳. 곧 집체의 바깥을 이른다.

「6」 집안의 남자 주인을 높이거나 스스로없이 이르는 말

**참고) 제41항-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는 조사**

밖에	보조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u>너밖에</u> 없다.
	명사+조사	집 <u>밖에</u> 나가 있어야.

2019년 지방직 9급

문 7.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중에 깨끗한 옷만 골라 입으세요.
- ② 어제는 밤이 늦도록 옛 책을 뒤적였다.
- ③ 시간 날 때 낚시나 한 번 같이 갑시다.
- ④ 사람들은 황급히 굴 속으로 모여들었다.

**★ 정답: ②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띄어쓰기**

‘옛’은 ‘지나간 때의.’라는 의미의 관형사이다. 그러므로 수식하는 체언 ‘책’ 앞에서 띄어 쓰는 것이 옳다.

**★ 오답 해설:**

① ‘그중’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에’는 조사이므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그중에’라고 써야 옳다.

③ ‘한 번’은 문맥에 따라 띄어 쓰기도 붙여 쓰기도 한다.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쓰고, ‘한번’의 의미가 특수화된 경우라면 합성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번이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회 있는 어떤 때’에 낚시를 가자는 의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 ‘굴속’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 등재되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으로’는 조사이므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굴속으로’라고 써야 옳다.

2020 지방직 9급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②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
- ③ 예산을 대충 건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
- ④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 정답: ①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어휘 - 혼동 어휘**

제시된 문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므로 동사 ‘하다’ 뒤에 어미 ‘-노라고’가 결합한 ‘하노라고’를 적는 것이 옳다.

- ‘-노라고’: 「어미」(동사 어간 뒤에 붙어) 자기 나름대로 꽤 노력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 ‘-느라고’: 「어미」(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거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예 영희는 웃음을 참느라고 탄 테를 보았다. / 철수는 어제 책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 먼 길을 오느라고 힘들었겠구나.

**참고) 한글 맞춤법 제57항**

가름	들로 가름	감음	새 책상으로 <u>갈음</u> 하였다.
거름	흙을 썩힌 <u>거름</u>	걸음	<u>빠른 걸음</u>
건잡다	<u>건잡을</u> 수 없는 상태	걸잡다	<u>걸잡아서</u> 이를 걸릴 일
하노라고	<u>하노라고</u> 한 것이 이것이다.	하느라고	<u>공부하느라고</u> 밤을 새웠다.

★ 오답 해설:

② 제시된 문장은 '제출한 안전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대금을 주고 받아서 거래 관계를 끝맺는다'는 뜻이므로 '결제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X) → 결제된다.(O)

- 결제하다: 【...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전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다. 예 서류를 결제하다.

- 결제하다: 【...을】 「1」 일을 처리하여 끝을 내다. 「2」 「경제」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다.

예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됐다. / 카드로 결제하다.

③ 제시된 문장은 예산을 겉으로만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지 말고 자세히 보라는 뜻이므로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의 '겉잡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예산을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X) → 겉잡아서(O)

- 겉잡다: 【...을】 (주로 '없다'와 함께 쓰여)

「1」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예 겉잡을 수 없는 사태. / 불길히 겉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다.

「2」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

예 겉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

- 겉잡다: 【...을】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예 겉잡아도 일주일엔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다 하라고 하니 일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어떨지는 말 안 해도 뻔하지. / 예산을 대충 겉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시오.

④ 제시된 문장은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뜻이므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의 뜻인 '갈음하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X) → 갈음합니다.(O)

- 갈음하다: 【...을】 「1」 쪼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2」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

예 이번 경기는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갈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갈음하다: 【...을 ...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갈음합니다.

★ 독해(비문학)(19/60)

- 정확도와 속도

1. 주제(4/19)

2021년 지방직 9급

문 12. 다음 글의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

인공지능(AI)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은 생물학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완동물이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AI)은 스스로 수학도 풀고 글도 쓰고 바둑을 두며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은 배우면서 성장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인공지능(AI)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게으름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일상생활의 패턴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AI)이 앱을 통해 좀 더 편리한 삶을 제공하여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일상에서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GPS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도를 보고 스스로 거리를 가늠하고 도착 시간을 계산했던 운전자들은 이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가라는 기계 속 음성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했다. 예전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잘 찾아가던 길에서조차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다. 이것이 없으면 자주 다니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멀쩡한 어른도 길을 잃는다.

이와 같이 기계에 의존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두뇌가 게을러진 것을 보여 주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삶을 더 편하게 해 준다면 지름길을 제시하는 도구들이 도리어 우리의 기억력과 창조력을 퇴보시키고 있다. 인간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뇌의 가장 뛰어난 영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 ① 인간의 인공지능(AI)에 대한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 ②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 ③ 인공지능(AI)은 인간을 능가하는 사고력을 가질 것이다.
- ④ 인공지능(AI)은 궁극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2020 지방직 9급

문 6.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들에게 헤엄쳐 오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변형시킨다.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改變)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 이는 인간의 세 가지 충동-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은 순응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도 생명체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 ①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
- ②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 ③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 ④ 인간은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

2020 지방직 9급

문 9.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

예술 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 작품의 특성상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 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빌 브란트가 마음만 먹었다면,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 ①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 ②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
- ③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 ④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명백히 모순되는 두 개의 견해를 취했다. 그들은 인간의 위치를 자연계 안에서 해명하려고 애썼다. 역사의 법칙이란 것을 자연의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다른 한편, 그들은 진보를 믿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는가?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고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뚜렷이 구분했다. 반면,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한 듯했다. 자연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원천인 생물학적인 유전(biological inheritance)을 역사에서의 진보의 원천인 사회적인 획득(social acquisition)과 혼동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오해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오늘날 그 둘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것이다.

- ①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 ②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 ③ 인간 유전의 사회적 의미
- ④ 자연의 진보에 대한 증거

2. 서술 전개 방식(1/19)

2019년 지방직 9급

문 3. 다음 글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5)

멕시코의 환경 운동가로 유명한 가브리엘 과드리리는 1960년대 이후 중앙아메리카 숲의 25% 이상이 목초지 조성을 위해 벌채되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앙아메리카 전체 농토의 2/3가 축산 단지로 점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만 1,497만 3,900 ha의 열대 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렇게 중앙아메리카의 열대림을 희생하면서까지 생산된 소고기는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그렇지만 이 소고기들은 지방분이 적고 미국인의 입맛에 그다지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 ② 전문 용어의 뜻을 쉽게 풀이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3. 접속어(1/19)**

2021년 지방직 9급

문 16. (가) ~ (라)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6)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항, 이조년 그리고 무명씨. 우리말로 시조나 가사를 썼던 이들이다. 황진은 말할 것도 없고 무명씨도 대부분 양반이 아니었겠지만 정철, 윤선도, 이항은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 (가) 그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허균이나 김만중은 한글로 소설까지 쓰지 않았던가. (다)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리말로 된 문학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특별한 양반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양반들은 한문을 썼기 때문에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학자 박지원이 당시 양반 사회를 풍자한 작품 「호질」은 한문으로 쓰여 있다. (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도 이항도 윤선도도 한글로 작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란 사실이다.

-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 ① | 그런데 | 게다가 | 그렇지만 | 그러나 |
| ② | 그런데 | 그리고 | 그래서  | 또는  |
| ③ | 그리고 | 그러나 | 하지만  | 즉   |
| ④ | 그래서 | 더구나 | 따라서  | 하지만 |

**4. 배치 · 배열(1/19)**

2020 지방직 9급

문 18.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7)

ㄱ. 17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ㄴ. 그러나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ㄷ.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다. 이후로도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ㄹ.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 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기업가 정신과 규제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ㅁ. 미국인들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 흑인 노동력에 힘입은 농산물 수출 덕분이었다.

- ① ㄱ - ㄷ - ㄴ - ㄹ - ㅁ
- ② ㄱ - ㄹ - ㄷ - ㄴ - ㅁ
- ③ ㄹ - ㄴ - ㄴ - ㄱ - ㄷ
- ④ ㄹ - ㄴ - ㄴ - ㄷ - ㅁ

**5. 내용 확인(긍정 발문)(3/19)**

2021년 지방직 9급

문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8)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사물의 속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훈련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가르칠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에 임해야 하며,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 대상의 '감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르친다. 특히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그러하다. 예를 들어 "네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인형을 그렇게 던져 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잖아. 담장도 아파하잖아." 같은 말들로 꾸짖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 곧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 ① 미국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 일본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한다.
- ② 일본의 어머니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것이 관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미국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미국의 어머니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

2021년 지방직 9급

문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9)

국제기구인 유엔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이 공용어로 사용되나 그곳에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이 공용어들을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에서의 공용어 개념도 유엔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지 모든 유럽연합인들이 열 개가 넘는 공용어를 전부 다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이는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뜻이지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되만 하면 모든 한국인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은 공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망상에 불과하다.

- ①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유럽연합은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원 편의를 도모하였다.
- ③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한국에서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10)

책은 벗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반가운 벗입니다. 배움과 벗에 관한 이야기는 『논어』의 첫 구절에도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수험 공부로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결코 반가운 벗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빨리 헤어지고 싶은 불행한 만남일 뿐입니다. 밑줄 그어 암기해야 하는 독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못 됩니다.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을 열고,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을 뛰어넘는 비약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삼독(三讀)입니다. 먼저 글을 읽고 다음으로 그 글을 집필한 필자를 읽어야 합니다. 그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합니다.

- ① 자신이 배운 것을 제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우(交友) 관계가 중요하다.
- ② 시대와 불화(不和)한 독자일수록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쉽다.
- ③ 반가운 벗과의 독서야말로 진정한 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첩경(捷徑)이다.
- ④ 독서는 타인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自己化)하는 과정이다.

6. 내용 확인(부정 발문)(1/19)

2021년 지방직 9급

문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11)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악플이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정도가 심하다. 악플러들 가운데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들에게 악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맞볼 수 있다.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

그런데 자기 효능감은 상대방의 반응에 좌우된다.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계속할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개인주의가 안착된 사회에서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건 너의 생각’이라면서 넘겨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욕설이나 험담이 날아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소행으로 웃어넘기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개인주의는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한국에는 그런 의미에서의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남에 대해 신경을 너무 끈두세운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한편으로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하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인터넷 공간에서 맞물려 악플을 양산한다.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험담을 늘어놓고 당사자에게 악담을 던진다. 그렇게 악을 올리면 상대방이 발끈하거나 움츠러든다. 이 따금 일과반과로 사회가 요동을 치기도 한다. 악플러 입장에서 재미가 쏠쏠하다. 예상했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으면서 자기 효능감을 맞볼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악플러는 자신의 말에 타인이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 ②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한다.
- ④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과 관계가 있다.

**7. 일반 추론(긍정 발문)(2/19)**

2021년 지방직 9급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12)

포도주는 유럽 문명을 대표하는 술이자 동시에 음료수다. 우리는 대개 포도주를 취하기 위해 마시는 술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유럽에서는 물 대신 마시는 ‘음료수’로서의 역할이 크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 물이 워낙 안 좋아서 맨 물을 그냥 마시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런 용도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당연히 고급 포도주와는 다른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소비의 확대와 함께, 포도주의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포도주 생산의 확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 재배가 추운 북쪽 지역으로 확대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에서 멈춰야 했지만,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갔다. 대체로 대서양의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립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상업적으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이다.

적정한 기온은 포도주 생산 가능 여부뿐 아니라 생산된 포도주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너무 추운 지역이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포도주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추운 지역에서는 포도에 당분이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신맛이 강하게 된다. 반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섬세한 맛이 부족해서 ‘흐물거리게’ 포도주가 생산된다(그 대신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셰리처럼 도수를 높인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다. 다만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는 샤토 디켄(Château d'Yquem)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포도주의 수요는 전 유럽적인 데 비해 생산은 이처럼 지리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찍부터 원거리 무역 품목이 됐고, 언제나 고가품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렇게 수출되는 고급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그해에 만든 술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 이하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 이야기이며, 그나마 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이후의 일이다.

- ① 고급 포도주는 모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졌다.
- ②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립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은 이탈리아보다 남쪽에 있을 것이다.
- ③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는 저렴한 포도주거나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은 것이다.
- ④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20. 다음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13)

효(孝)가 개인과 가족, 곧 일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라면, 충(忠)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이차적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효를 순응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고 오해하는가 하면, 충과 효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경향이 많아졌다. 다음을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 윗사람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난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다.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에는 인(仁)의 근본이다.”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된다. 곧 종족 윤리의 기본이 되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신분 사회의 엄격한 상하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효란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였던 충보다 우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기본 입장은 설사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비해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로 본다. 의리가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①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한 일차적 인간관계이다.
- ②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므로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한 덕목이다.
- ③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 유교적 윤리의 한 바탕이다.
- ④ 충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인의 이치다.

**8. 일반 추론(부정 발문)(3/19)**

2020 지방직 9급

문 1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14)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한다.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경향이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 즉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함을 말한다.

일례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이 판단의 과정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도 촬영했다.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뇌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②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 ③ 사람에게서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5)

그동안 나는 <일 포스티노>를 세 번쯤 빌려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영화 속에 아스라이 문학이 따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쉽고도 절실하게 설명해 놓은 문학 교과서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때 나는 종종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 다.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다.

시를 공부하면서 은유에 시달려 본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수차례 무릎을 쳤을 것이다.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여기서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라면 어부들이 그물을 걸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이 이르면 은유는 절정에 달한다. 더 이상의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 ① 문학의 미적 자질과 영화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② 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 영화 <일 포스티노>를 참고할 만하다.
- ③ 영화 <일 포스티노>의 인물들은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
- ④ 영화 <일 포스티노>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서와도 같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6)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뒷방살이 신세로 전락한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이 뒤쳐져서 사라져야 할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식량 및 에너지 등 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나라와 생명을 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본주의의 가치를 앞세우고 농업 르네상스 시대의 재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불확실성의 터널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농업은 자원 순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땅의 생산력에 기초해서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 산업인 동시에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한 뒤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 모른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역사에 동승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넘겨주는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는 이유에 주목할 만하다.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 ①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용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 ②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에 비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 ③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④ 고도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하였다.

9. 고급 추론(3/19)

2021년 지방직 9급

문 8.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7)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이와 반대로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곤 한다. 그러나 단호한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과 다르다.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 단호한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며 요점을 찌른다.

그럼 실제로 연습해 보자. 어느 흡연자가 당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묻는다. 당신은 담배 연기를 싫어하고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달갑지 않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가?

- ① 좀 그러긴 하지만, 괜찮아요. 창문 열고 피우세요.
- ② 안 되죠. 흡연이 얼마나 해로운데요. 좀 참아 보시겠어요.
- ③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릴게요.
- ④ 물어봐 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 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2021년 지방직 9급

문 19.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8)

혼정신성(昏定晨省)이란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봐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핌을 뜻하는 말로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 나오는 말이다. 아랫목 요에 손을 넣어 방 안 온도를 살피면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던 우리의 옛 전통은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과 관련 깊다. 온돌을 통한 난방 방식은 방바닥에 깔려 있는 돌이 열기로 인해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돌의 열기로 방바닥이 뜨거워지면 방 전체에 복사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방바닥 쪽의 차가운 공기는 온돌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지므로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다시 식으면 아래로 내려와 다시 데워져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으로 인해 결국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벽난로를 통한 서양식의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인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 .

- ①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방바닥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복사열로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 ②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③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은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 ④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2020 지방직 9급

문 1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19)

2004년 1월 태국에서는 한 소년이 극심한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소년의 폐는 완전히 망가져 호흡호물해져 있었다. 분석 결과, 이전까지 인간이 감염된 적이 없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소년은 공식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의 첫 사망자가 되었다.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면역 반응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하자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도리어 인체에 해를 끼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부른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능력이 강한 젊은 층일수록 더 세계 일어난다.

만약 집에 ㉠ 줄도둑이 들었다면 작은 손해를 각오하고 인기척을 내도둑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만약 ㉡ 뭉둥이를 들고 도둑과 싸우려 든다면 도둑은 ㉢ 강도로 돌변한다. 인체가 H5N1에 감염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처음으로 새가 아닌 다른 숙주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과민 반응한 면역계와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 결과 50%가 넘는 승률로 바이러스가 승리한다. 그러나 ㉣ 승리의 대가는 비싸다. 숙주가 죽어 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시 함께 죽어 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악명을 떨치면서도 조류 독감의 사망 환자 수가 전 세계에서 400명을 넘기지 않는 이유다. 이 질병이 아직 사람사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바이러스가 인체라는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① ㉠: 면역계의 과민 반응
- ② ㉡: 계절 독감
- ③ ㉢: 치명적 바이러스
- ④ ㉣: 극심한 폐렴 증세

# ★ 독해(문학)(14/60)

## - 미리 알아야 하는 것 + 문항 대응 능력

### 1. 고전 운문(2/14)

2021년 지방직 9급

문 1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나) 별레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丹青) 풍경 소리 날려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등주리를 마구쳤다. 큰 나라 섬기다 거  
미줄 친 옥좌(玉座) 위엔 여의주(如意珠) 희롱하는 쌍룡(雙  
龍) 대신에 두 마리 봉황(鳳凰)새를 틀어올렸다. 어느 뎨들  
봉황이 울었으랴만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  
림자. 패옥(佩玉) 소리도 없었다. 품석(品石) 옆에서 정일품(正  
一品) 종구품(從九品) 어느 줄에도 나의 몸돌 곳은 바이 없었  
다.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九泉)에  
호곡(呼哭)하리라.

- ① (가)는 '산천'과 '인결'을 대비함으로써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쌍룡'과 '봉황'을 대비함으로써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선경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고전과 현대 운문의 내용과 형식 이해  
(가)는 '오백년/도읍지를/필마로/돌아드니'와 같이 3:4조 4음보의 형태로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나)는 율격과 음보에 구애받지 않고 시상을 전개한 자유시이다.

★ 오답해설:  
① (가)에서는 '산천'(자연물)의 영원성과 '인결'(인간사)의 유한성을 대비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서는 중국의 황제를 의미하는 '쌍룡'과 조선의 왕을 의미하는 '봉황'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좌 위엔 여의주를 희롱하는 쌍룡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라고 하며 사대주의적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에서는 초장에서 오백 년 도읍지의 모습이 나타난 후에 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나타나며 (나)에서는 황폐해진 궁궐의 정경(전반부)이 제시된 뒤 망해 버린 옛 왕조에 대한 화자의 심회(후반부)가 나타난다.

★ 작품 해설: (가) 길재, <五百年(오백 년) 도읍지를>  
• 해제: 조선이 개국한 다음에도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며 끝까지 버슬길에 나가지 않은 작자가 고려의 도읍지였던 송도를 돌아보며 느낀 감회를 적은 작품이다.  
• 갈래: 평시조  
•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초장	고려의 옛 서울을 찾음
중장	인간사의 무상함
종장	고려 왕조에 대한 무상감

(나) 조지훈, <봉황수(鳳凰愁)>  
• 해제: 이 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전반부에서는 낡은 궁궐을 간략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망해 버린 옛 왕조에 대한 심회를 드러낸다. 그것은 곧 '큰 나라 섬기던'으로 표현되는 사대주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시인의 시선으로 대변된다. 후반부에서는 망국의 백성으로 부끄러워하고 서글퍼하는 심정이 '몸

돌 곳은 바이 없었다.'는 표현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눈물이 속된 것임을 몰랐다면 큰 소리로 울었을 것이라면서 눈물을 감추고 있지만 정작 크게 통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 망국의 비애

2019년 지방직 9급  
문 10. (가) ~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뵈  
고인(古人)을 못 뵈도 녀던 길 앞피니 잇니니  
녀던 길 앞피니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

(나) 술은 어이하야 도흐니 누룩 섯글 타시러라  
국은 어이하야 도흐니 염매(鹽梅) 툷 타시러라  
이 음식 이 뜬을 알면 만수무강(萬壽無疆)허리라

(다) 우레갯치 소르나는 님을 번기갯치 번뜻 만나  
비갯치 오락가락 구름갯치 헤어지니  
흉중(胸中)에 브름갯튼 혼숨이 안기 피듯 흐여라

(라) 하하 허허 흘들 내 우음이 정 우음가  
하 여척 업서서 늦기다가 그리 되게  
벗넉넉 웃디들 말구려 아귀 찍어디러라

- ① (가): 연쇄법을 활용하여 고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 문답법과 대조법을 활용하여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 ③ (다): '갯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운율감을 더하고 있다.
- ④ (라): 냉소적 어조를 통해 상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형식 이해  
(나)에는 '술은 어이하야 좋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다, 국이 어이하야 맛이 좋은가? 간을 알맞게 한 탓이다.'의 부분에 문답법이 활용되었지만, 대조법은 찾을 수가 없다. 또한 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도 아니다.

★ 오답해설:  
① '나도 고인 못 뵈었으니~고인을 못 뵈었어도', '녀던 길 앞에 잇니니~녀던 길 앞에 잇거든'으로 연쇄법이 사용되었고, '아니 녀고 엇덜고'에서 고인이 가던 길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③ (다)는 '우레갯치', '번개갯치', '비갯치', '구름갯치'로 '갯치'를 반복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를 통해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  
④ (라)에서는 웃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기 때문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대에게 웃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현대어 풀이]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었으니  
고인을 못 뵈었어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잇거든 아니 가고 어쩔꼬  
-이황, 도산십이곡 中-  
술은 어이하야 좋은가? 누룩을 섞은 탓이로다.  
국은 어이하야 맛이 좋은가? 소금을 타서 간을 알맞게 한 탓이로다.  
이 음식의 원리를 알면 만수무강하리라.  
-윤선도, 초연곡 中-  
우레같이 소리 나는 입을 번개같이 번뜻 만나  
비같이 오락가락(사랑을 주고받고) 구름같이 헤어지니  
가슴 가운데 바람 같은 한숨이 안개 피듯 하는구나.  
-작자미상-

하하 허허 하고 있다고 해서 내 웃음이 정말 웃음인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느끼다가 그리 웃네.  
사람들이 웃디들 말구려 아귀가 찢어질지 모르네  
-권섭, 하하 허허 한들-

2. 고전 산문(5/14)

2021년 지방직 9급

문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는 오월 단오날이었다.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 ㉠ 이때 월매 딸 춘향이도 또한 시서 읊음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를쏘냐. 추천을 하려고 향단이 앞세우고 내려올 제,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게 땅아 봉황 새긴 비녀를 단정히 매었구나. ... (중략) ... 장립 속으로 들어가니 ㉡ 녹음방초 우거져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황금 같은 피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 버드나무 높은 곳에서 그네 타러 할 때, 좋은 비단 초록 장옷, 남색 명주 홀치마 훨훨 벗어 걸어 두고, 자주색 비단 꽃신을 씩씩 벗어 던져두고, 흰 비단 새 속옷 턱밑에 훨씬 추켜올리고, 삼겹걸 그넷줄을 섬섬옥수 넉지시 들어 두 손에 갈라 잡고, 흰 비단 버선 두 발길로 훌쩍 올라 발 구른다. ... (중략) ... ㉢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발밑에 작은 티끌 바람 쫓아 펄펄, 앞뒤 점점 멀어 가니 머리 위의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오고갈 제 살펴보니 녹음 속의 붉은 치맛자락 바람결에 내비치니, 높고 넓은 흰 구름 사이에 번갯불이 쏘는 듯 잠깐 사이에 앞뒤가 바뀌는구나. ... (중략) ... 무수히 진퇴하며 한참 노닐 적에 시냇가 반석 위에 옥비녀 떨어져 쟁쟁하고, '비녀, 비녀' 하는 소리는 산호채를 들어 옥그릇을 깨뜨리는 듯. ㉣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 작자 미상, 「춘향전」에서 -

- ①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 ② ㉡: 비유법을 사용하고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고 있다.
- ③ ㉢: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춘향이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하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형식 이해

㉢의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라는 편집자적 논평은 춘향이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한 것이 아니다. ㉢ 앞에 제시된 내용으로 볼 때 그녀를 타는 춘향이의 외면적 아름다움을 서술한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해설:

- ① ㉠에서는 '~르쏘냐'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춘향이도 천중절을 당연히 알 것이라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에서는 '황금 같은 피꼬리'와 같은 비유법을 사용하고 '피꼬리는 쌍쌍이 날아든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춘향과 몽룡이가 만나게 되는 배경, 즉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서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녹음'은 본래 여름의 풍경을 의미하나 맥락상 우거진 나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 ③ ㉢에서는 '펄펄', '흔들흔들'과 같은 의태어(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음성상징어란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뜻한다.

★ 작품 해설: 작자 미상, <춘향전>

- 해제: '춘향전'은 설화에서 판소리로, 판소리에서 소설로, 소설에서 창작 및 연극 영화로 다채롭게 변모 생성되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

다. '춘향전'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인간다움의 추구'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한민족의 전통적 사유가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춘향전'을 통해 한민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과 그 전통성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춘향전'을 제재로 하여 한민족의 사유에 면연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정서와 사유적 특성, 다양한 언어적 표현 기법을 확인하고 이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갈래: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애정 소설
- 특징: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운율과 산문투의 말이 결합되어 문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오는 동안 여러 사람이 이 이야기의 형성에 관여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민층의 말투는 물론 고상한 시구 등을 인용한 말 등이 섞여서 작품에 나타나게 된다. 그 밖에도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한 생생한 표현, 대구와 열거, 반복 등을 통한 의미 전달이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 주제: 새로운 가치 체계(인간다움의 추구,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의한 기존의 가치 체계(인간성에 대한 억압) 부정

2020 지방직 9급

문 12. 다음 글에서 의인화하고 있는 사물은?

姓은 楮이요, 이름은 白이요, 字는 無玷이다. 회계 사람이고, 한나라 중상시 상방명 채륜의 후손이다. 태어날 때 난초탕에 목욕하여 흰 구슬을 희롱하고 흰 띠로 꾸렸으므로 빛이 새하얗다. ... (중략) ... 성질이 본시 정결하여 武人是 좋아하지 않고 文士와 더불어 노닌데, 毛學士가 그 벗으로 매양 친하게 어울려서 비록 그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

- ① 대나무
- ② 백옥
- ③ 엽전
- ④ 종이

★ 정답: ④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지식국어

성(姓)인 '저(楮)'는 닥나무라는 종이의 원료를, 이름인 '백(白)'은 흰 종이의 색깔을, 자(字)인 '무점(無玷)'은 깨끗한 종이의 특성을 가리킨다. 또한 '무인은 좋아하지 않고 문사와 더불어 노닌다'에서 선비가 주로 사용하는 종이임을 추론할 수 있고, 벗을 의인화한 '모학사'가 '얼굴에 점을 찍어 더럽혀도 씻지 않았다' 등의 표현에서도 종이임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이첨, <지생전>

- 해제: 이 작품에 의인화되어 있는 지생(楮生)의 생애는 작자 이첨의 실제 생애와 아주 유사하다. 작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9명의 임금을 섬기는 동안 화려한 벼슬살이를 하기도 하였지만, 직언을 하다가 여러 번 귀양살이도 하였으니, 그야말로 영욕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작가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종이의 역사나 기능에 의탁하여 당시 부패한 선비의 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려고 이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다.
- 주제: 종이의 생애, 문신으로서 올바른 삶. 근시(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신하)와 정객들의 직간(直諫)을 주제로 위정자들에게 바른 정치를 권유

2020 지방직 9급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책책을 들었다. 궁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궁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대사는 일절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 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계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개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계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 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궁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 작자 미상, 「봉산탈춤」에서 -

- ① 양반들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쳤군.
- ② 생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들고 춤을 추며 등장했군.
- ③ 말뚝이가 궁거리장단에 맞춰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군.
- ④ 도련님이 방정맞게 굴면서 생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부채로 때렸군.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말뚝이가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기 전에 음악과 춤이 멈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궁거리장단에 맞춰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 ① 양반들은 자신들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아, 이놈, 뭐야아!'라며 야단을 치고 있다.
- ② 삼 형제 중 만이가 생님, 둘째가 서방님이다. 양반 삼 형제는 모두 '말뚝이 뒤를 따라 궁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고, 그중 생님과 서방님은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도령(삼형제 중 막내)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에서 선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작품 해설: 작자 미상, <봉산 탈춤>

• 해제: 이 작품은 황해도 봉산에서 전승되던 탈춤으로, 크게 7과정(마당)으로 되어 있다. 제1과정(4상좌춤)은 벽사의 의식무(儀式舞)이고, 제2과정(8목중춤)은 여덟 명의 목중이 각자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재담을 한다. 제3과정(사당춤)은 흠아비거사가 사당을 희롱하고 7명의 거사들은 놀림가를 합창하며 질탕하게 논다. 제4과정(노장춤)은 파계승에 대한 풍자와, 노장의 대한 풍자, 취발이가 노장을 물리치고 사랑을 쟁취하는 내용이다. 제5과정(사자춤)은 목중을 벌하기 위해 보낸 사자가 목중이 회개하자 용서한다는

내용이다. 제6과정(양반춤)은 말뚝이가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제7과정(미얄춤)은 헤어졌던 영감과 미얄이 만나지만, 영감의 첩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영감한테 미얄이 맞아죽는다. 이에 남강노인이 무당을 불러 미얄의 혼령을 위로해 준다.

2020 지방직 9급

문 20. 밑줄 친 부분에서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금와왕이 이상히 여겨 유희를 방 안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 이로 해서 태기가 있어 알[卵]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닭 되들이만 했다. 왕이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에 ㉡ 내다 버리게 했더니 소와 말이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들이 덮어 주었다. 왕이 쪼개 보려고 했으나 아무리 해도 쪼개지지 않아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더니 한 아이가 ㉢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겨우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이미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나라 풍속에 ㉣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므로 그 아이를 '주몽'이라 했다.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재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만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일찍 ㉤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니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어서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 껍질을 깨고 나온 주체는 아이, 즉 주몽이다.  
 ㉤: 둔한 말을 잘 먹여서 살찌게 한 사람은 '주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의 주체는 주몽이므로 적절한 선지이다.

★ 오답 해설:

- ㉠: '몸을 피하는' 주체는 '유희'이다. '금와왕이 유희를 방 안에 가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유희가)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 '내다 버리게 했더니'의 주체는 '(금와)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금와)왕이 그것(알)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먹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이어 (금와왕이) 다시 (누군가에게 시켜) (알을) 길에 내다 버리게 했다는 맥락이 자연스럽다.
- ㉢: 껍질을 깨고 나온 주체는 아이, 즉 주몽이다.
- ㉣: '활 잘 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주몽'이라고 불렀다는 말이므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 ㉤: 맥락상 '없애지 않는다면'의 주체는 '대소(금와왕의 만아들)' 혹은 '금와왕' 혹은 그 둘을 포함한 '우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작품 해설: 작자 미상, <동명왕 신화>

- 해제: 이 작품은 고주몽이라는 영웅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을 그린 건국 신화이다. 따라서 영웅의 일대기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데, 주인공이 알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는 '난생 신화(卵生神話)'에 해당되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른바 '어벌성교(魚鼈成橋: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가 되어 춤)'의 유명한 모티프도 포함되어 있다.
- 주제: 고구려의 건국의 과정

2019년 지방직 9급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 소사가 말하기를, “신부(新婦)가 이제 내 집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남편을 도울꼬?”

사씨 대답하여 말하기를, “첩(妾)이 일찍 아버를 여의고 자모(慈母)의 사랑을 입사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치 못하옵거니와 어미 첩을 보낼 제 중문(中門)에 임(臨)하여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공경(恭敬)하며 반드시 경계(警戒)하여 남편을 어기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경경(耿耿)하여 컷가에 있나이다.”

유 소사가 말하기를, “남편의 뜻을 어기오지 말면 장부(丈夫) 비록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순종(順從)하라?”

사씨 대답, “그런 말이 아니오라 부부(夫婦)의 도(道) 오륜(五倫)을 겸(兼)하였으니 아버지께 간(諫)하는 자식이 있고 나라에 간하는 신하 있고 형제(兄弟) 서로 권하고 봉우(朋友) 서로 책(責)하니 어찌 부부라고 간쟁(諫諍)치 않으리이까? 그러하나 자고로 장부(丈夫) 부인(婦人)의 말을 편청(偏聽)하면 해로움이 있삽고 유익(有益)함이 없으니 어찌 경계 아니 하리이까?”

유 소사가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의 며느리는 가히 조대가\*에 비할 것이니 어찌 시속(時俗) 여자가 미칠 바리오.”라고 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에서 -

\* 조대가: 『한서(漢書)』를 지은 반고(班固)의 누이동생인 반소(班昭).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왕실 여성의 스승으로 칭송이 자자했다.

- ① 사씨의 어머니는 딸이 남편에게 맞았던 일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사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유 소사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효성이 지극한 사씨의 모습에 흠족해 하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고전 산문의 내용 이해**

사씨는 오륜 중에 부부의 도가 있기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간하고, 신하가 나라에 간하듯 부부끼리도 간쟁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씨는 부부의 예에 따라 남편이 잘못하면 이를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

**★ 오답 해설:**

① 사씨의 말을 통해 사씨의 어머니가 사씨에게 남편을 공경하라고 당부했다는 부분이 나와있지만, 남편에게 맞선 사씨를 비판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사씨가 ‘본래 배운 것이 없으니’라고 표현한 부분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유 소사는 사씨의 지혜롭고 덕망 높은 모습에 흠족한 것이지 사씨의 효성에 흠족한 것이 아니다.

**★ 작품 해설: 김만중, <사씨남정기>**

- 갈래: 고전소설, 가정소설, 풍간(諷諫)소설, 목적소설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사씨의 부덕(婦德)과 사필귀정, 권선징악
- 특징: 대화를 통한 사건을 전개하고 갈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까다로운 한문 투의 표현을 피하고 구어체에 접근함. 속담이나 격언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함.

- 구성: 평면적 구성-시간의 순서에 따른 일대기적 구성
- 발단 - 명나라 유현의 아들 연수는 한림학사가 되고 사씨와 결혼함.
- 전개 - 사 씨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고 씨를 첩으로 들임.
- 위기 - 고 씨는 한림에게 사 씨에 대한 온갖 참소를 함.
- 절정 - 고 씨는 자기 아들을 죽여 사 씨를 모함하고 정실이 된 후, 한림을 참소하고 갖은 악행을 저지름
- 결말 - 고 씨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감.

3. 현대 운문(2/14)

2020 지방직 9급

문 5.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짝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러 간 후에야 따리 끈 입에 물고 삼작 들어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지요.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을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가 미나리밭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앙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훅 풍겼지요.

- 함민복, 「그 샘」 -

- ①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
- ②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 ③ 공감각적 이미지로 이웃 간의 배려를 표현했다.
- ④ 구어체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과 형식 이해**

‘서로 짝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지요.’를 통해 ‘이웃 간의 배려’를 느낄 수 있으나, 공감각적 이미지는 찾아볼 수 없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어떤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미나리가 푸르고’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잘도 썩어 구린내 훅 풍겼지요.’에서 후각적 이미지를 찾을 수 있으나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샘’은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쌓고 느끼게 해 주는 매개체이다. 하나의 샘에서 나오는 넉넉하지 않은 물은 네 집의 이웃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나눠 먹는 것으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들을 수 있었지요.’, ‘길어 먹었지요.’, ‘볼 수 있었지요.’ 등 과거 시제를 통해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④ ‘~지요.’, ‘~지요.’ 등 구어체의 종결 방식을 통해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투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작품 해설: 함민복, <그 샘>**

- 해제: 이 시는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함으로써 마음만큼은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시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샘’은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쌓고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화자는 물이 넉넉하지 않은 샘물을 네 집의 이웃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먹었던 과거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고향이 바람직한 공동체이자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요.’, ‘-지요.’의 사용으로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나리의 ‘푸르다’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감자의 ‘구린내’라는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향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주제: 바람직한 공동체의 삶, 이웃 간의 배려와 양보



2021년 지방직 9급

문 18. 다음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은?

서연: 여보게, 동연이.  
 동연: 왜?  
 서연: 자네가 본뜨려는 부처님 형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 놓은 걸세. 그런데 자네는 그 형상을 또다시 베껴 만들 작정이군. 자넨 의심도 없는가? 심사숙고해 보게. 그런 형상이 진짜 부처님은 아닐세.  
 동연: 나에겐 전혀 의심이 없네.  
 서연: 의심이 없다니.....?  
 동연: 무엇 때문에 의심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서연: 음.....  
 동연: 공부할 하게, 괜히 의심 말고! (허공에 걸려 있는 행화를 가리키며) 자넨 얼마나 형상 공부를 했는가? 이 십일면관 세음보살의 머리 위에는 열한 개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를 살펴나 봤었는가? 귀고리, 목걸이, 손에 든 보병과 기원화란 꽃의 형태를 꼼꼼히 연구했었는가? 자네처럼 게으른 자들은 공부는 안 하고, 아무 의미 없다 의심만 하지!  
 서연: 자넨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 그렇다면 그 형태 속에 부처님 마음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게.  
 - 이강백, 「느낌, 극락 같은」에서 -

- ① 불상 제작에 대한 동연과 서연의 입장은 다르다.
- ② 서연은 전해지는 부처님 형상을 의심하는 인물이다.
- ③ 동연은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인물이다.
- ④ 동연과 서연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공부를 하게, 괜히 의심 말고!’라는 동연의 말과 ‘자넨 정말 열심히 공부했네.’와 같은 서연의 말을 통해, 동연이 불상의 완벽한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 형상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연은 부처님의 형상은 흔히 있는 것을 베껴 놓은 것이며, 동연이 그 형상을 다시 베껴 부처님 형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동연이 부처님 형상을 독창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오답해설:

- ① 동연은 불상의 완벽한 형태 속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고 믿으며 서연은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야 진정한 불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불상 제작에 대한 동연과 서연의 입장은 다르다.
- ② 서연은 전해지는 불상은 누가 언제 그렸는지는 몰라도 흔히 있는 것을 베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심한다.
- ④ 완벽한 형태 속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고 믿는 형식론자인 동연과 부처의 마음을 깨달아야 진정한 불상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론자인 서연의 대화는 예술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의 논쟁을 연상시킨다.

★ 작품 해설: 이강백, <느낌, 극락 같은>

- 해제: 「느낌, 극락 같은」은 예술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관점을 등장인물의 가치관을 통해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예술의 ‘형태’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각각 예술의 형태나 내용, 또는 양자의 결합을 추구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불상의 완벽한 형태를 강조하는 동연과 불상 속에 부처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연 사이의 갈등은 예술에서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관점과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관점 사이의 갈등, 즉 형태와 내용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할 수 있다.
- 주제: 진정한 인간 구원의 문제

2021년 지방직 9급

문 7.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슈 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  
 나는 그를 좋아할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느끼던 것의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 감정—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무슈 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로.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 스물두 살의 남성이고 열여덟 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이다. 왜 나는 이 일을 그대로 알아서 안 되는가?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우리를 비꼬러매는 형식이 결코 ‘오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 같은 일을—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아아,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  
 초저녁의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싸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느껴 울고 만다.  
 -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에서 -

- ①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②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법률상의 ‘오누이’일 뿐이다.
- ③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 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 ④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나’가 ‘무슈 리’를 아버지로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의 탓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다.

★ 오답해설:

- ① ‘나는 또 물론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기를 바란다’를 통해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무슈 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 ‘무슈 리의 아들인 현규와도 마찬가지로. 그와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순전한 타인이다.’를 통해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며 법률상의 ‘오누이’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를 비꼬러매는 형식이 결코 ‘오누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와 ‘아아, 나는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행복이란,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는 그 일을 말함이 아닌가?’를 통해 나는 사회적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 해제: 이 작품은 ‘만남과 이별’ 그리고 ‘만남의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이 작품은 사회 규범상 용납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갈등을 윤리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인물들이 그

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회 규범을 초월하는 사랑의 순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끝까지 맑고 청순한 사랑의 감정을 깨뜨리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현실의 아픔을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속회와 현규의 의지가 감동을 줄 만하다.

- 주제: 현실의 굴레를 극복하고 순수한 사랑을 성취하는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모습

2020 지방직 9급

문 16. 다음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향만의 끝에 이르러서야 잠려졌다. 석탄을 싣고 온 화차(貨車)는 자칫 바다에 빠뜨릴 듯한 머리를 위태롭게 사리며 깜짝 놀라 멧고 그 서늘에 밀구멍으로 주르르 석탄 가루를 흘려보냈다.

집에 가 봐야 노루꼬리만큼 짙다는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향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명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명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곁었다. 울울이 흠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돌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닿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탈경거름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제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뭉뚱함이 짙은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찜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보다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에서 -

- ①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 ② 향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다.
- ③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다.
- ④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다.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뭉뚱함이 짙은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발로 뛰어넘었다.’를 통해 아이들이 철조망을 쉽게 넘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시'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라는 표현을 통해,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향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 '철도 건너 저탄장'의 표현을 통해, 향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찜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작품 해설: 오정희, <중국인 거리>

- 해제: <중국인 거리>는 한 소녀로 설정된 '나'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담아 낸 성장 소설이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중국인 거리'는 '나'의 유년 시절을 보낸 공간이며, 6.25 전쟁이 끝난 직후 하층민들의 피폐한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이다. '나'는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해나간다.
- 주제: 전쟁 직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한 소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

2019년 지방직 9급

문 15.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의 늪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었다. 처마 끝 저편에 퍼진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으나, 아스무레한 초여름 기운에 잠겨 있었다. 집은 전제로 조용하고 쓸렁했다.

팡 당 팡 당.

먼 어느 곳에서는 이따금 여운이 긴 쇠붙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 거리의 철공소나 대강간에서 별것에 단 쇠를 쇠망치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근처에는 그런 곳은 없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먼 곳일 것이었다.

팡 당 팡 당.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쑤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자극했다.

“참, 저거 무슨 소리유?”

영희가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글쎄, 무슨 소릴까…….”

정애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에 철공소는 없을 텐데.”

“…….”

정애는 표정으로만 수궁을 했다.

팡 당 팡 당.

그 쇠붙이에 쇠망치 부딪치는 소리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 바깥의 선들대는 늪은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의 여운에 울려 흔들리고 있었다. 저 소리는 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다. 형광등 바로 위의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 이호철, 「닿아지는 살들」에서 -

- ①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다.
- ② '꽝 당 꽝 당' 소리는 인물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 ③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
- ④ '소리의 여운'은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주어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형식 이해**

소설에서 '단선적 구성'은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하나의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복선적 구성은 두 개 이상의 이야기가 각각 독자적인 구성에 의해 질서와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소리의 여운'으로 인해 새로운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소설의 '단선적 구성'에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 또한 '소리의 여운'은 갈등 해소의 기미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오답 해설:**

- ① 늙은 나무들이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부분을 통해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꽝 당 꽝 당'은 단조로운 소리인 동시에 송곳처럼 쑺는 구석이 있어 등장인물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단조로운 소리'의 반복을 통해 '방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모종의 의미가 부여됨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이호철, <달아지는 살들>**

- 해제: 전쟁으로 인한 분단이 한 가족에게 가져다 준 고통과 상처를 다룬 작품이다. 특별한 사건 없이 북에 두고 온 만말을 기다리는 한 가족의 상황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있다. 뚜렷한 사건의 전개는 보이지 않으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역시 단절된 상황을 보여 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들려오는 '쇠붙이 소리'는 가족의 정신적 상처를 상징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달아지는 살들'이라는 제목을 통해 가족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기다림의 지속으로 인해 마모되어 가는 가족의 유대감을 상징하고 있다.
- 주제: 전쟁이 가져다준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과 상처
- 구성
  - 발단: 만말을 기다리는 가족
  - 전개: 쇠붙이 소리와 영화, 성식 등 가족의 단절된 삶
  - 절정: 열두 시를 알리는 종소리에 식물을 언니라고 외치는 영화
  - 결말: 계속 들려오는 쇠붙이 소리

**★ 독해(화법과 작문)(8/60)**

**- 필요한 이론과 문항 대응**

**1. 화법(4/8)**

2021년 지방직 9급

문 6.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A: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 B: 어떤 연락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 A: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싫어서요.
- B: 글썽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사 표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되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 A: 네, 기억합니다.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 ①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이해한다.
- ② A는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한다.
- ③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에 대해 판단한다.
- ④ A는 비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

**★ 정답: ③ - 독해(화법) - 말하기 내용**

B는 고객이 제안서에서 '코로나 시기에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고객의 답변을 완곡한 거절로 판단하였다.

**★ 오답해설:**

- ① '검토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 A는 제안서 승낙이라 이해했지만 B는 완곡한 거절이라 이해하였다.
- ② '동일한 사업적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표현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한 사람은 B이다.
- ④ A는 표정, 몸짓(박수)과 같은 비(非)언어적 표현과 부드러운 목소리 같은 반(半)언어적 표현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의 답변을 제안서에 대한 승낙이라고 생각하였다.

2020 지방직 9급

문 2.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김 대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장: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 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허.  
 김 대리: 박 부장님은 오늘 못 나오신다고 전해 달라셨어요.  
 이 부장: 그럼, 우리끼리 출발합니다.

- 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 ②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③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④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 정답: ② - 독해(화법) - 공손성의 원리**  
 대화에서 이 부장은 김 대리가 늦은 것을 탓하지 않고 최 대리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약속에 늦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하여) 선지의 '부담'이라는 표현을 '미안함'으로 해석하면 정답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으나, 본래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에서 말하는 '부담'은 화자가 뭔가 요청을 하였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여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찬동의 격률'로 보아야 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오답 해설:**  
 ① '동의를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③ '관용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④ '찬동의 격률'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는 공손한 어법을 가리키는 말로서 '정중 어법'이라고도 한다. 공손성의 원리에는 요령의 격률, 관용의 격률,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를 격률이 있다.

-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중하고 공손한 말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다.
- 관용의 격률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화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 격률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자신이 떠맡음으로써 남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라는 것이다.
- 찬동의 격률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겸양의 격률은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동의를 격률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2. 토론에서 사회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토론을 시작하면서 논제가 타당한지 토론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 ②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한다.
-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약화시킨다.
-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여 논쟁의 확산을 꾀한다.

**★ 정답: ② - 독해(화법) - 토론 - 사회자의 역할**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논의이다. 토론의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함에 앞서 토론자들에게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안내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해설:**  
 ① 논제가 타당한지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토론자들에게 묻는 것 또한 사회자의 역할이라 볼 수 없다.  
 ③ 청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패널 토의', '포럼' 등으로 토의에서의 사회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토론은 토의처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안을 제시해 쟁점을 약화시키는 것도 토론에서의 사회자의 역할이라 할 수 없다.  
 ④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를 비판하는 견해를 개진하는 것은 토론에서 사회자가 아닌 토론자의 역할이다. 토론에서의 사회자는 토론자들의 주장과 논거를 요약하여 논쟁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 지방직 9급

문 12.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홍 교수: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홍 교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게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가요?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요?

홍 교수: 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2014년에는 9.0%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차량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만 할 수는 없을 테고, 뭔가 보완책이 있나요?

홍 교수: 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지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나요?

홍 교수: 일회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아, 운전면허를 반납한 당시에만 교통비가 한 차례 지원된다는 말씀이군요.

홍 교수: 네. 이분들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이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필요할 듯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다.
- ②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제시한다.
- ③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 ④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 정답: ① - 독해(화법) - 말하기 방식

진행자는 상대방의 의견에 더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해설:

② 홍 교수가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제시하며 '전체 교통사고 대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자, 진행자는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해당하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의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③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홍 교수가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자, 진행자는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어보며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④ 홍 교수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소개하자, 진행자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지,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보며 상대방에게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2. 작문(4/8)

2021년 지방직 9급

문 17. (가) ~ (라)의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현재 우리 구청 조직도에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국, 복지국, 안전국, 보건소가 있었다.
- (나) 오늘은 우리 시청이 지양하는 '누구나 행복한 ○○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지역 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 (라) 공과금을 기한 내에 지정 금융 기관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 ① (가): '있었다'는 문맥상 시제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있다'로 고쳐 쓴다.
- ② (나): '지양'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는 의미인 '지향'으로 고쳐 쓴다.
- ③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은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므로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로 고쳐 쓴다.
- ④ (라): '납부'는 맥락상 금융 기관이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이는 '수납'으로 고쳐 쓴다.

★ 정답: ④ - 독해(작문) - 고쳐쓰기

'수납(收納)'이란 '돈이나 물품 따위를 받아 거두어들이'이라는 뜻으로 (라)의 경우 공과금을 금융 기관에 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납부'를 '수납'으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納 들일 납, 付 줄 부 / 收 거둘 수, 納 들일 납

★ 오답해설:

- ① (가) 문장 앞의 부사 '현재'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활용하여 과거를 나타낸 서술어 '있었다'의 시제 호응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있었다'는 '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나) '지양(止揚)'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함.'의 뜻으로 "누구나 행복한 ○○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이라는 논의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여기에는 '지양'이 아니라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의 뜻인 '지향(指向)'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指 가리킬 지, 向 향할 향 / 止 그칠 지, 揚 날릴 양
- ③ (다) '지난달 수해로 인한'은 '준비 기간'을 수식하는 절이 아니다. '준비 기간'의 원인이 '지난달 수해'가 아니라, '준비 기간이 짧았던 원인'이 '지난달 수해'인 것이므로 '지난달 수해로 인하여'로 고쳐 쓰는 것이 의미 호응에 적절하다.

2020 지방직 9급

문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글의 내용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예로 제시한다.
-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 ③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열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 ④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임을 지적한다.

**★ 정답: ① - 독해(작문) - 글쓰기 계획과 자료 활용**  
 게임 업체로부터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발송된 경우는 개인 정보 보호 관리나 인터넷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다. 작성하려는 글의 주제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오답 해설:**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 증가'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③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④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예산의 부족'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2020 지방직 9급

문 13. 다음 보도 기사별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도 기사	마무리 표현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	㉠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	㉡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	㉢
연예 스캔들 소식	㉣

- ① ㉠: 모조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
- ② ㉡: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 ③ ㉢: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④ ㉣: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정답: ② - 독해(작문) - 실용문의 작성**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을 다룬 보도 기사의 마지막 표현으로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양측의 의견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표현이 ㉡에 들어가기 적절하다. '그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의 '새삼'은 '이전의 느낌이나 감정이 다시금 새롭게'라는 의미의 부사이다. 따라서 앞에서 진술한 사건이 주는 교훈이나 그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강조할 때 마지막 표현으로 들어가기 적절한 표현이다.  
**★ 오답 해설:**

- ① 양자 간의 소송이나 다툼에 관한 소식을 다룬 보도 기사의 마지막 표현으로는 해당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모조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는 ㉠에 들어가기 적절한 표현이다.
- ③ 사건이 터지고 결과가 드러나기 전 소식을 다룬 기사의 마지막 표현으로는 결과의 향방이 주목된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은 일이 돌아가는 행국이 주목된다는 뜻으로 ㉢에 들어가기 적절한 표현이다.
- ④ 연예 스캔들 소식을 다룬 기사의 마지막 표현으로는 해당 소식에 대한 평가보다 소식이 일으키는 파급력에 대해 언급하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는 ㉣에 들어가기 적절한 표현이다.

2020 지방직 9급

문 11. 다음 글의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짧혀지고** 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은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국내에선 19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실행했던 일을 현실에서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 듯**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판별하기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을 '뺄고'로 수정한다.
- ②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긴다.
- ③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한다.
- ④ 앞 문장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을 '그러므로'로 수정한다.

**★ 정답: ① - 독해(작문) - 고쳐쓰기**  
 '짧혀지다'는 '뺄다'의 어간 '뺄-'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파생적 피동을 이룬 뒤, 피동 표현을 만드는 '-어지다'가 결합하여 통사적 피동을 하였으므로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따라서 이중 피동을 해소하여 '뺄히고'와 같이 고쳐야 한다. '뺄고'로 고치는 것은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② ㉡의 앞에 제시된 문장은 '리셋 증후군 환자들의 증상'을 서술한 문장이고 ㉢은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고 국내에서 언제부터 쓰였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을 먼저 이야기한 뒤에 '그 증상'을 서술하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러우므로 ㉡을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앞뒤 문장은 청소년들이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막다른 골목'은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제시된 문장에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㉔의 앞에 제시된 문장은 리셋 증후군의 진단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진단이 어려우므로 그 대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㉔의 뒤에 제시된 문장은 리셋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고 있으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를 쓰는 것이 옳다.

## ★ 한자와 어휘(7/60)

### - 발문 방식과 선지 초점의 변화

#### 1. 한자(2/7)

2020 지방직 9급

문 10.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직장을 구했다.  
→ 遺棄하고
- ②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다.  
→ 根絶되는
- ③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찾고 있다.  
→ 投棄하고
- ④ 취직하려면 그녀는 우선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 拋棄해야

**★ 정답: ③ - 어휘 - 한자어**  
 '쓰레기를 내던져 버리다'라는 의미로는, '投棄하다(투기하다)'가 적절하다.  
 投棄하다(투기하다): 내던져 버리다. ≒투사하다.  
 • 쓰레기를 투기하다.  
 投 던질 투, 棄 버릴 기  
**★ 오답 해설:**  
 ① '꿈을 버리다'라는 의미로는 '拋棄하다(포기하다)'가 적절하다.  
 遺棄하다(유기하다): 내다 버리다.  
 • 시체를 유기하다.  
 •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지성인의 사회적 책임을 유기하는 행위이다.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② '반려견을 버리다'라는 의미로는 '遺棄하다(유기하다)'가 적절하다.  
 根絶되다(근절되다):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리다.  
 • 앞으로 이와 같은 폐단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그들의 부정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는 철저히 근절되고 가차 없이 처단되어야 마땅하다.  
 根 뿌리 근, 絶 끊을 절  
 ④ '나쁜 습관을 버리다'라는 의미로는 '根絶하다(근절하다)'나 '矯正(교정)하다'가 적합하다.  
 拋棄하다(포기하다)  
 「1」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  
 • 진학을 포기하다. / 출마를 포기하다. / 출전을 포기하다.  
 「2」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리다.  
 •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 이 집을 계약하고 싶으면 먼저 계약했던 전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拋 던질 포, 棄 버릴 기

2019년 지방직 9급

문 1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 정답: ① - 어휘 - 한자**  
 유명세(有名勢)의 세(勢)는 '세금'을 뜻하는 '세'로서, 기존에 혼동하는 '유명세를 타다.'의 쓰임은 '세'를 선지에서와 같이 일종의 '세력'(勢力)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유명해지면 치러야 할 일종의 '세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어구이기 때문에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로 쓰는 것이 맞다.  
**★ 오답 해설:**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복불복이란,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이다. 사람의 운수에 따라 누가 먼저 할 것인지를 정한다는 뜻으로서 쓰임이 적절하다.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대증요법'이란,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을 이르는 말이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만을 대응하여 처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맥상의 해석이 가능하므로, 쓰임이 적절하다.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경위'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의 과정이 아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문맥상의 해석이 가능하므로, 쓰임이 적절하다.

#### 2. 성어(2/7)

2020 지방직 9급

문 8. 다음에 서술된 A사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최근 출시된 A사의 신제품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신제품의 성공으로 A사는 B사에게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 ① 兔死狗烹
- ② 捲土重來
- ③ 手不釋卷
- ④ 我田引水

**★ 정답: ② - 어휘 - 한자 성어**  
 A사가 신제품의 성공으로 B사에게 내주었던 업계 1위 자리를 탈환한 상황은 '한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의미하는 '捲土重來(권토중래)'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捲土重來(권토중래)  
 「1」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  
 「2」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捲 말 권, 土 흙 토, 重 무거운 중, 來 올 래

**★ 오답 해설:**

- ① 兔死狗烹(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兔 토끼 토, 死 죽을 사, 狗 개 구, 烹 삶은 팽
- ③ 手不釋卷(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아니하고 늘 글을 읽음.  
手 손 수, 不 아닐 불, 釋 풀 석, 卷 책 권
- ④ 我田引水(아전인수):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我 나 아, 田 밭 전, 引 끌 인, 水 물 수

**2019년 지방직 9급**

문 17. 다음 (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인데다 가히 ( )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 ① 花朝月夕
- ② 韋編三絕
- ③ 天衣無縫
- ④ 莫無可奈

**★ 정답: ③ - 어휘 - 한자 성어**

지문의 문맥상,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일필휘지)'라는 대목을 보면 一筆揮之(일필휘지)는 '글씨를 단숨에 죽 내리씀'이란 뜻으로 방랑시인 김삿갓의 흠잡을 데 없는 뛰어난 글솜씨를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天衣無縫(천의무봉)의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이라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입각한 그대로의 해석을 빈칸에 넣는 것이 뒤의 대목과 정확히 부합하는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天衣無縫(천의무봉)이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天衣無縫(천의무봉):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함

天 하늘 천, 衣 옷 의, 無 없을 무, 縫 꿰맬 봉

**★ 오답 해설:**

- ① 花朝月夕(화조월석):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 = 朝花月夕(조화월석)  
花 꽃 화, 朝 아침 조, 月 달 월, 夕 저녁 석
- ② 韋編三絕(위편삼절):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 = 手不釋卷(수불석권), 螢雪之功(형설지공)  
韋 가죽 위, 編 엮을 편, 三 석 삼, 絕 끊을 절
- ④ 莫無可奈(막무가내): '달리 어찌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莫可奈何(막가내하), 無可奈何(무가내하)  
莫 없을 막, 無 없을 무, 可 가능할 가, 奈 어찌 내

**3. 유의어/문맥적 의미(1/7)**

**2019년 지방직 9급**

문 11.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맞게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의미	문장
살다	경기가 놀이에서,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	㉢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

- ① ㉠: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
- ② ㉡: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 ③ ㉢: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 있다.
- ④ ㉣: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

**★ 정답: ③ [어휘 - 문맥적 의미]**

**★ 정답 해설:**

'풀기가 살아 있다'의 '살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의 뜻으로, '풀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을 뜻한다.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 있거나 생생하게 일어나다'의 의미가 아니다.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문장으로는 '어렸을 때 배운 노래 한 구절이 머릿속에 아직도 살아 있다.'를 들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만 살아 있다'의 '살다'는 '경기가 놀이인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가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고 있다'의 의미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②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에서 목적으로 쓰인 '벼슬'이 직분을 나타내어 '벼슬을 살다'의 '살다'는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라는 ㉡의 의미에 맞게 쓰였다.
- ④ '그렇게 세계 부딪혔는데도 시계가 살아 있다'는 '움직이던 시계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므로 제시된 문장은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4. 고유어(1/7)**

**2021년 지방직 9급**

문 3.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나절: 하루 낮의 반
- ②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 ③ 그쪄저계: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 ④ 해거리: 한 해를 거른 간격

**★ 정답: 정답 없음 - 어휘 - 고유어**

- ① 반나절: 1. 「명사」 한나절의 반. ≒반상, 반향, 한것.  
2. 하룻낮의 반(半). ≒한나절.
- ②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삭여, 월경, 월여.
- ③ 그쪄저계: 「명사」 그저계의 전날.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삼작일, 재재작일. 「부사」 그저계의 전날에.
- ④ 해거리: 「명사」 1. 한 해를 거름. 또는 그런 간격. 2. 한 해를 걸러서 열매가 많이 열림. 또는 그런 현상.

순(旬)	한 달을 셋으로 나눈 열흘 동안
망(望)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는 때. 음력 보름
날포	하루 이상이 걸치어진 동안
달포	한 달 이상이 되는 동안
해포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5. 관용 표현(1/7)**

2021년 지방직 9급

문 4.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몹시 가난한 형편에 누구를 돕겠느냐? - 가량이가 찢어질
- ② 그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어 물건을 쉽게 팔았다. - 호흡을 맞춰
- ③ 그는 상대방을 보고는 속으로 깔보며 비웃었다. - 코웃음을 쳤다
- ④ 주인의 말에 넘어가 실제보다 비싸게 이 물건을 샀다. - 바가지를 쓰고

**★ 정답: ② - 어휘 - 관용 표현**

‘호흡을 맞추다’는 ‘일을 할 때 서로의 행동이나 의향을 잘 알고 처리하여 나간다.’라는 뜻으로 ‘그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어 물건을 쉽게 팔았다.’의 ‘연결해 주어’와 바꿔 쓸 수 없다. ‘연결해 주다’와 바꿔 쓸 수 있는 관용 표현으로는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둘 또는 여럿을 연결하다.’의 뜻인 ‘다리를 놓다’가 있다.

· 연결하다: 사물과 사물을 서로 잇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게 하다.

**★ 오답해설:**

- ① ‘가량이가 찢어지다’는 ‘몹시 가난한 살림살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몹시 가난한’과 ‘가량이가 찢어질’은 바꿔 쓸 수 있다.
- ③ ‘코웃음을 치다’는 ‘남을 깔보고 비웃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깔보며 비웃었다’와 ‘코웃음을 쳤다’는 바꿔 쓸 수 있다.
- ④ ‘바가지를 쓰다’는 ‘요금이나 물건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실제보다 비싸게’와 ‘바가지를 쓰고’는 바꿔 쓸 수 있다.

**★ 융합형(1/60)**

2021년 지방직 9급

문 9.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집안 내력을 알고 보른 동기간이나 진배없고, 성환이도 이자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상의도 오빠같이 그렇게 알아놔라.” 하고 장씨 아저씨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의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거부감을 느꼈다. 사람에게 거부감을 느꼈기보다 제복에 거부감을 느꼈는지 모른다. 학교규칙이나 사회의 눈이 두려웠는지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은 청춘남녀였으니까. 호야 할매 입에서도 성환의 이름이 나오기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가),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자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 했을 건데 아프기는 와 아프는고, 옛말 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 박경리, 「토지」에서 -

- ① 오매불망(寤寐不忘)                      ② 망운지정(望雲之情)
- ③ 염화미소(拈華微笑)                      ④ 백아절현(伯牙絕絃)

**★ 정답: ①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성어**

(가) 앞뒤에 제시된 ‘장씨 아저씨’의 말을 통해 ‘호야 할매’의 손주가 ‘성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의 바로 뒤에서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자는 성환이도 대학생이 되었으니 할매가 원풀이 한풀이를 다 했을 건데’를 통해 할매가 내내 손주에 대해 걱정하고 그의 성장을 기다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 가장 적절한 성어는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오매불망(寤寐不忘)’이다.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寤 잠 깬 오, 寐 잘 때, 不 아닐 불, 忘 잊을 망

**★ 오답해설:**

② 망운지정(望雲之情):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  
 望 바람 망, 雲 구름 운, 之 갈 지, 情 뜻 정

③ 염화미소(拈華微笑):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석가모니가 영산회(靈山會)에서 연꽃 한 송이를 대중에게 보이자 마하가섭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 지으므로 그에게 불교의 진리를 주었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다.  
 拈 집을 넘(염), 華 빛날 화, 微 작을 미, 笑 웃음 소

④ 백아절현(伯牙絕絃):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중국 춘추 시대에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매우 잘 탔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는 그 거문고 소리를 잘 들었는데, 종자기가 죽어 그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게 되자 백아가 절망하여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伯 만 백, 牙 어금니 아, 絶 끊을 절, 絃 줄 현

**★ 작품 해설: 박경리, <토지>**

- 해제: 이 글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만 25년에 걸쳐 전5부 16권으로 완성된 대하 장편 소설이다. 그 방대한 분량만큼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파란만장한 개인사와 그에 얽힌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보여 준다. 격변한 우리 민족 근대사의 현실 속에 면면히 이어 내려온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전통적 정신 세계를 형상화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신적 위상을 드높인 한국 소설사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 특징: 이 글은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 해방 직후에 이르는 장구한 시간과 국토의 남쪽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하여 경성과 간도 지방에 이르는 방대한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격변한 민족 근대사의 현실 속에서 최 참관 일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적 수난과 토지에서 한을 안고 살아가는 민중의 삶과 그 속에서의 애환을 생생하게 그려서 우리 민족의 건강한 생명력과 끈질긴 삶의 의지를 조명하고 있다.
- 주제: 역사적 격동기의 시절 민족의 한과 강인한 의지

**독해 정답해설**

**1) ★ 정답: ㉔ [독해(비문학) - 주제]**

첫째 문단에서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 다며 인공지능(AI)의 발전상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둘째 문단에서 ‘인공지능(AI)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을 던지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나갔다. 이어지는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진 사례 를 제시하며 오늘날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고 기억력과 창조력, 상 상력이 퇴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결론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이다.

**★ 오답해설:**

① 지문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의 두뇌가 게을러지는 부작용 을 다루고 있다. 셋째 문단에서는 운전자들이 인공지능(AI) 앱 (GPS)에 의존하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인 공지능(AI)에 대한 독립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글의 내용 과는 거리가 멀다.

③ 첫째 문단에서 인공지능(AI)이 사람보다 똑똑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결 론이라 보기는 어렵다.

④ 넷째 문단에서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 뇌의 가장 뛰어난 영 역인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인공지능 (AI)이 궁극적으로 상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지문을 통해 추론할 수 없을뿐더러 글의 결론과도 거리가 멀다.

**2) ★ 정답: ㉓ - 독해(비문학) - 주제**

첫째 문단은 생명체들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 숙한 동물들의 행동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그 환경의 변형이 능동적 인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문단은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동일하게 환경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다. 즉, ‘생명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환경을 개조시키며, 그것은 적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이 지문의 주장이다. 따라서, ‘생명체는 환 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는 선지가 지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둘째 문단의 ‘인간도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 환경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를 통해 인간이 단순한 적응을 넘 어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조해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환 경에 적응해 왔다’는 진술은 지문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 환경에 대한 적극성을 보인다. 또한, 인간의 세 가지 충동은 ‘사는 것, 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으로, 단순한 생존과는 구별되는 충동이 존재한다. 따 라서, ‘삶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지문의 주장과 거 리가 멀다.

④ ‘인간이 잘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한다’라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지문의 주요 개념인 ‘능동’에 대한 내용이 없고 논의의 대상을 생명체 전체가 아니라 인간으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지문의 주장으로 가장 적 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3) ★ 정답: ㉔ - 독해(비문학) - 주제**

첫째 문단은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를 제시한 뒤, 사진과 회화를 구별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소 개한다. 이어지는 둘째 문단은 그러한 사람들의 경향과 다르게, 사진 의 경우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설 명한다. 즉, 지문은 사진의 경우에 복제본이 원본과는 다른 예술적 속 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 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선지가 지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해설:**

- ① 원본과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 비교는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 ② 둘째 문단에서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라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둘째 문단의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 법이 다양함’을 통해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이 제한 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 정답: ㉑ [독해(비문학) - 주제]**

글은 계몽주의 사상가, 헤겔, 다윈 등의 사람들이 진화와 진보를 어떻 게 구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이 동일하다고 여기고, 진보를 믿었기 때문에, 자연을 진 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헤겔은 역사는 진보하지만, 자연은 진보하 지 않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다윈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진보와 진화에 관한 다양한 견해, 입장 차이를 설 명하고 있으므로, 글의 제목은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이 적절하 다.

**★ 오답 해설:**

② 계몽주의 사상가, 헤겔, 다윈의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는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으로 환원되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글의 뒷부 분에, 다윈의 견해가 진화의 원천과 진보의 원천을 혼동함으로써 더 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된 소재 를 진보와 진화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③ 글은 진화와 진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진화의 원천이 ‘생물학적 인 유전’이라고 서술되고 있으나, 인간 유전이나 그 사회적 의미에 대 한 언급은 없다.

④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연이 진보한다고 본 데 비해, 헤겔은 자연 이 진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 차이를 다루고 있으나 그 증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 ★ 정답: ㉔ 독해(비문학) - 전개 방식**

‘숲의 25% 이상’, ‘전체 농토의 2/3’, ‘1,497만 3,900ha’ 등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글의 신뢰성, 논거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생산된 소고기는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었으나 미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대부분 햄버거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 하나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나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내용은 글이 말하는 사태의 심각성(멕시코의 숲, 유럽 파괴)을 알리는 것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② ‘점유’, ‘지방분’ 등 글에 나오는 용어의 뜻이 쉽게 풀이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전문 용어의 뜻이 풀이된 부분이 없다.

③ 글에는 수치를 포함한 다양한 숲, 유럽 파괴 사례가 제시되고 있 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를 나열하여 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다.

**6) ★ 정답: ㉑ - 독해(비문학) - 접속어**

(가) 앞에는 정철, 윤선도, 이항이 양반이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뒤에는 이들이 우리말로 작품을 썼던 걸 보면 양반들도 한글 쓰는 걸 즐겨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연결하는 말은 전환의 접속어인 ‘그런데’가 되어야 한다. → ㉓, ㉔ 탈락

(나) 앞에는 양반들도 한글 쓰는 것을 즐겨 했다는 내용이, 뒤에는 허균이나 김만중이 한글로 소설을 썼다는 내용이 있다. 뒤의 내용

은 앞의 내용에 이어 양반들이 한글을 사용하여 '소설까지' 썼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보충(첨가)의 접속어인 '게다가' 또는 '더구나'가 들어가야 한다. → ②, ③ 탈락

(다) 앞에는 양반들이 한글 쓰는 것을 즐겼다는 내용이, 뒤에는 이들이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양반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내용이 반전되는 것이므로, 역접의 접속어인 '그렇지만' 또는 '하지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②, ④ 탈락

(라) 앞에는 대부분의 양반들이 한글을 모를 수도 있었으며 「호질」이 한문으로 쓰였다는 내용이, 뒤에는 양반 대부분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정철, 이황, 윤선도가 한글로 작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즉 앞의 내용은 대다수의 양반들이 한글을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며, 뒤의 내용은 양반들이 한글을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두 내용이 반대되므로 역접의 접속어인 '그러나' 또는 '하지만'이 들어가야 한다. → ②, ③ 탈락

7)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배열

ㄱ. 1700년대 중반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다.

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남북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의 이유로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 과학적/기술적 대전환, 기업이 정신과 규제 없는 시장 경제 등을 꼽으며,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ㄷ. 미국이 '그러한' 분야에서 다른 산업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로 문장이 시작하므로, 앞서 현재 문장과는 반대의,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위를 가진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제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에 해당하는 분야들이 앞서 제시되어야 한다. ㄴ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경제 성장의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고, ㄴ에서 여러 분야가 제시되었으므로, ㄴ-ㄷ의 순서가 자연스럽다. → ②, ④ 탈락

ㄹ.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을 제시하고 있다.

ㅁ. 미국인들이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 자원, 흑인 노동력이었다는 내용이다. 경제적 풍요로움을 말하고 있는 문장은 ㄱ(평균 소득)과 ㄴ(경제 성장)인데, ㄱ은 '1700년대 중반'을, ㄴ은 '19세기'를 말하고 있으므로, ㅁ에서 말하는 초기 정착기는 ㄱ을 의미한다. 따라서, ㄱ이 ㅁ보다 먼저 제시된다. → ③ 탈락

따라서, ㄱ-ㄷ-ㅁ-ㄴ-ㄹ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8)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 발문

첫째 문단에 따르면, 미국의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는다'고 하였고 둘째 문단에 따르면, 일본의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도록 교육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자녀가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도록 교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해설:

① 미국의 어머니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강조하며, 일본의 어머니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것을 강조한다.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일본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을 훈련한다. 특정 사물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국의 어머니의 교육법이다.

③ 미국의 어머니가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행동 이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예측하는 것은 일본의 어머니의 교육법에 가깝다.

9)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 발문

첫째 문단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는 열 개가 넘는 공용어 중 하나만 알아도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복수의 공용어를 지정하여 공무원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오답해설: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유엔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교관들이 공용어를 전부 다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엔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유엔의 공용어를 다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둘째 문단에 따르면, 우리가 만일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다면 이는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알기만 하면 공식 업무상 불편이 없게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것이지 모든 한국인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러한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둘째 문단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뿐, 머지않아 영어가 공용어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측은 제시하지 않았다.

10) ★ 정답: ④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긍정 발문

셋째 문단에 따르면, 독서는 글을 읽고, 집필한 필자를 읽고, 그것을 읽는 독자 자신을 읽는 삼독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글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집필한 필자를 읽는 과정에서 필자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 발 딛고 있는지를 읽은 후, 자신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와 우리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즉, 타인(필자)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자기화하는 과정이다.

★ 오답해설:

① 첫째 문단에서 책을 벗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움의 즐거움'과 '벗처럼 책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책의 특징, 책을 대할 때의 태도를 벗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실제 벗에 대해 서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 친밀한 교우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② 셋째 문단에 따르면, 독자는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와 시대의 문맥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책과 필자를 읽고 나서의 과정이다. 즉, 책과 필자의 시대를 토대로 독자가 서 있는 시대를 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대와 불화한 독자일수록 자신의 시대의 문맥을 깨닫기 어려울 것이므로, 독서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 첫째 문단에서 책을 벗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움의 즐거움'과 '벗처럼 책을 반갑게 맞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책의 특징, 책을 대할 때의 태도를 벗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실제 벗에 대해 서술한 것이 아니다. 또한 셋째 문단으로 미루어보면, 진정한 독자는 삼독을 하는 독자로, 책과 필자와 자신을 읽는 사람이다.

11)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첫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무력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발설, 즉 악플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느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보다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에게 더 공격적인 발설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악플러일수록 타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는지는 지문의 내용으로 알 수 없다.

★ 오답해설: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악플러는 자신이 올린 글 한 줄에 다른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마구 욕을 퍼부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자는 악플에 무반응함으로써 악플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 ④ 셋째 문단에 따르면, 한국에는 개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해 타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이면서 참견하는 동시에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너무 예민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성이 맞물려 악플을 양산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악플이 양산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타인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2)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넷째 문단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일부 고급 적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워 보관한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라 하였다. 따라서 고급 백포도주를 병에 담아 코르크 마개를 끼운다고 해도, 보관 기간에 비례하여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셋째 문단에 따르면,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호물거리는’ 포도주가 생산되나 이를 잘 활용하면 포르토나 세리처럼 도수를 높은 고급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달콤한 백포도주의 경우는 샴 디켄처럼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고급 포도주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에서 재배된 포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포도가 자라는 북방 한계가 이탈리아 정도이나, 수도원마다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포도 재배가 가능한 북방한계선이 상당히 북쪽까지 올라가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선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루아르강 하구로부터 크림반도와 조지아를 잇는 북방한계선은 이탈리아보다 북쪽에 있을 것이다.
- ③ 첫째 문단에 따르면, 유럽에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식사용 포도주로는 저렴한 포도주가 쓰이며, 술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섞어서 마시기도 한다. ‘저렴한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시는 것이지, 고급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시는 것이 아니다.

**13) ☆ 정답: ③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긍정 발문]**

**☆ 정답 해설:**

넷째 문단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효(孝)는 자연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꿀을 수 없지만, 임금과 신하의 관계인 충(忠)은 공동의 목표를 위한 관계로서 의리에 의해 맺어진 관계로 본다고 말한다. 따라서 의리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관계를 꿀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교의 기본 입장은 실사 부모의 명령이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교적 윤리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하지 않을 것이라 결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서 ‘효를 봉건 가부장제 사회유습이라고 오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넷째 문단에서 효는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글쓴이는 말한다.
- ② 셋째 문단에서 유교에서는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글쓴이는 효(孝)가 조건 없는 신뢰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셋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효는 가족 윤리 또는 종족 윤리로서 사회 윤리인 층보다 우선된다고 말한다. 또한 종족 윤리의 기본인 연장자

에 대한 예우가 신분 사회의 상하관계로 연결된다고 본다. 따라서 충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은 글쓴이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14)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지문의 소개는 확증 편향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를 수용하거나 무시/부정하는 심리적 경향에 관한 내용이다.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오답 해설:**

- ① 첫째 문단에 따르면,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행동하지 않게 한다. 즉,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다.
- ② 확증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에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한다. 둘째 문단의 예시를 보면,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는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즉, 확증 편향은 사람들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선지는 적절하다.
- ③ 확증 편향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만을 수용한다. 또한, 확증 편향은 우리의 신념과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지지자의 말은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로, 신념의 강화는 신념의 유지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은 확증 편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5) ☆ 정답: ③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다음 글에서 글쓴이는 <일 포스티노>의 인물인 마리오 루폴로가 네루다에게 보내기 위해 해변의 파도 소리를 녹음하는 것이 은유의 출발이며, 어부들이 그물을 걸어 올리는 소리를 담고자 하는 모습은 은유의 확장, 밤하늘의 별빛을 녹음하는 장면은 은유의 절정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는 글쓴이가 영화의 장면을 통해 ‘은유’를 설명한 것일 뿐, 영화 속의 인물들이 문학적 은유의 본질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다음 글은 ‘나’가 ‘시’의 본질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일 포스티노>가 시의 본질인 은유적 측면을 영화에서 잘 담아낸다는 것을 통해 문학의 전반적인 미적 자질과 <일 포스티노>의 미적 자질 사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다음 글에서 ‘수백 마디의 말보다 <일 포스티노>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시의 본질에 훨씬 깊숙이, 훨씬 빨리 가 닿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다음 글에서 ‘나’가 시를 가르칠 때 문학 교과서보다는 영화 <일 포스티노>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16) ☆ 정답: ①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부정 발문]**

다음 글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녹색 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효율성만을 중시해온 ‘유목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과학 기술의 부작용을 성찰해야 한다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② 둘째 문단에 '유목민적 태도'가 오늘날 위기를 낳고 키워 왔는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반면, '정주민의 문화적 지속성을 존중하는 농업의 가치'가 오늘날 주목할 만하다는 내용을 통해 정주 생활을 하는 민족이 농업 가치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둘째 문단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적 태도'로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효용성을 내세우는 경제 시스템, 즉 '유목민적 태도'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첫째 문단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 농업이 우리 경제의 뒷받침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부분을 통해 농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 정답: ③ - 득해(비문학) - 사례 추론**

글쓴이의 견해는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대응은 ③이다.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라며 자신의 주장을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근거로 '연기가 해롭다'는 것을 제시하여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함과 동시에, '피우고 싶으시면 차를 세워 드리겠다'라며 상대방이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 오답해설:**

- 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달갑지 않음에도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므로 단호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 ② '좀 참아 보시겠어요'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담배를 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가 아니다.
- ④ '물어봐 줘서 고마워요',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라며 정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다.

**18) ★ 정답: ④ - 득해(비문학) - 빈칸 추론**

온돌에 적용된 대류 현상의 원리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져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간 공기가 식으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벽난로를 통한 난방 방식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바로 데우는 것이므로, 위로 올라간 공기가 식지 않아 아래로 내려올 일이 없으므로 바닥 바로 위 공기가 따뜻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말은 '상체와 위쪽의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다'가 된다.

**★ 오답해설:**

- ① 온돌의 원리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식으면 복사열로 위쪽의 공기만을 따뜻하게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벽난로에 의한 난방은 복사열을 이용하여 상체와 위쪽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며, 대류 현상으로 바닥 바로 위 공기까지 따뜻해지는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벽난로에 의한 난방이 '복사열에 의한 난방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난방'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벽난로에 의한 난방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온돌은 대류 현상을 통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 따라서 대류 현상을 통한 난방 방식이 상체와 위쪽의 공기만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19) ★ 정답: ③ - 득해(비문학) - 문맥 추론**

강도는 몽둥이로 인해서 좀도독이 위협적으로 돌변한 결과이다. 이는 위 사례에서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좀도독)가 인간의 면역 반응(몽둥이)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 해를 끼친 바이러스(강도)로 돌변한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강도는 계절 독감이 돌변한 치명적 바이러스이다.

**★ 오답 해설:**

- ① 좀도독은 작은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다. 이는 위 사례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계절 독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몽둥이는 도독을 더 위협적인 강도로 돌변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위 사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명적으로 만든 면역계의 과민반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④ 바이러스의 승리의 대가로 숙주는 죽어버렸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 역시 죽음을 맞게 된다. 이는 위 사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소년(숙주)의 죽음과 소년의 몸속에 기거하던 바이러스의 죽음과 연결된다. 따라서 승리의 대가는 숙주가 겪는 극심한 폐렴 증세가 아닌 바이러스 자신의 죽음이다.